

2008 창작팩토리 토론회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일시 : 2009년 4월 15일(수) 오후 3시

장소 : 대학로 서울문화재단 세미나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전국문예회관연합회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 개요

- 제목 : 2008 창작팩토리 토론회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 일시 : 2009년 4월 15일(수) 오후 3시~
- 장소 : 대학로 서울문화재단 세미나실

□ 진행

- 사회 :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구 분
개회	15:00~15:10		
인사말	15:10~15:20	인 사 말	민경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사무국장
발제 1	15:20~15:40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의 특징과 성과	김승미 서울예술대학 교수
발제 2	15:40~16:00	창작팩토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용신 뮤지컬 칼럼리스트
휴식	16:00~16:20	휴 식	
토론 1	16:20~16:35	공연예술지원정책으로의 창작팩토리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원종원 순천향대학교 교수
토론 2	16:35~16:50	창작팩토리를 통한 공연제작 로드맵 (참가 사례발표)	김승철 창작공동체아르케 대표
토론 3	16:50~17:05	창작팩토리 사업을 통한 공연예술창작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역할 확대 방안	소홍삼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토론 4	17:05~17:20	창작팩토리 사업구조와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유희성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종합토론	17:20~17:50	종 합 토 론	
정리/폐회	17:50~18:00		

목차 Contents

1	2008 창작팩토리 사업추진경과
7	[발제1] ‘창작팩토리’ 사업 발전방안 - 시범공연 작품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15	[발제2] 2008 창작팩토리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제언
23	[토론1] 공연예술지원정책으로의 창작팩토리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29	[토론2]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을 통한 공연제작 사례: 창작공동체 아르케의 ‘그류? 그루!’에 있어서
35	[토론3] 창작팩토리 사업과 문예회관의 역할 확대 방안
43	[토론4] 창작팩토리 사업구조와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2008 창작팩토리 사업추진경과

□ 사업 개요

- 목적 : 사후지원 및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전략적 창작활동 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공연 예술 창작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작의 욕을 고취시키고,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8. 9월 ~ 2009. 2월
- 지원대상 : 공연예술창작자 및 단체, 문예회관 (서울지역 문예회관 제외)
- 지원방법 : 정액지원
- 소요예산 : 8억원(전액 국고)
- 사업내용

① 대본 공모	② 시범공연지원	③ 우수작품 제작지원	④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역량 있는 작가&작품 발굴 및 창작 의욕 고취	창작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시장 저변확대	작품성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지원	공연 재연을 통한 레퍼토리화 지원
상금 및 차년도 시범공연 기회제공	시범공연 제작비 지원 및 시연회 개최 (시범공연작품 중 제작지원작품 선정)	공동제작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제작지원금 지급	재공연 기회 제공 (공연료지원 및 공연 지역 배정)

□ 사업별 추진 실적

가. 희곡 및 뮤지컬 대본 공모

- 대상 : 미발표된 창작희곡 및 창작 뮤지컬 대본/음악
- 추진현황
 - 공모기간 : 2008년9월10일~12월12일
 - 공모건수 : 총 142건 (희곡101건, 뮤지컬41건)
 - 심사기간 : 2008년12월22일~2009년1월18일
 - 심사방법 : 1차 개별서류심사/2차 선정협의
- 선정 작품
 - 희곡 : 미친극(최우수), 하얀앵두(우수), 경성스타(우수)
 - 뮤지컬 : Lost Piece March(우수), 봄에 눈이 와요(우수)

- 지원내역
 - 희곡 : 최우수작(1편) 2천만원/우수작(2편) 각 1천만원
 - 뮤지컬 : 우수작(2편) 각 1천만원
- 행정 지원
 - 자료집 제작, 평가간담회 개최
 - 2009년 시범공연 참가 지원 (비용지원 포함)

나. 창작 연극 및 뮤지컬 시범공연(쇼케이스) 지원

- 대상 : 공연되지 않은 연극 및 뮤지컬
- 추진현황
 - 공모기간 : 2008년9월10일~11월21일
 - 공모건수 : 총 59건 (연극38건, 뮤지컬18건)
 - 심사기간 : 2008년11월28일~12월3일
 - 심사방법 : 1차 개별서류심사/2차 선정협의
- 선정 작품
 - 연극 : 나마스테, 바다거북의 꿈, 그류?그류!, O.K.Story, 매화누이, 그 샘에 고인 말
 - 뮤지컬 : 솔거의 꿈, 영웅을 기다리며, 낭만에 대하여, 기발한 자살 여행, 오월엔 결혼할 거야, My Scary Girl
- 지원내역
 - 연극 : 3백만원/뮤지컬 : 5백만원
- 행정 지원 : 시범공연을 통한 제작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다. 우수 연극 및 뮤지컬 작품 제작지원

- 대상 : 시범공연을 통해 발굴된 우수 창작 연극 및 뮤지컬
- 추진현황
 - 심사일정 : 2009년1월20일/2009년1월22일
 - 심사방법 : 공연예술전문가와 문예회관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 개별채점을 통한 종합 산정
- 선정 작품
 - 연극 : 그 샘에 고인 말(최우수), 그류?그류!(우수), 바다거북의 꿈(우수)

- 뮤지컬 : 영웅을 기다리며(최우수), 오월엔 결혼할거야(우수)
- 지원내역
 - 희곡 : 최우수작(1편) 6천만원/우수작(2편) 각 4천만원
 - 뮤지컬 : 최우수작(1편) 1억원/우수작(1편) 각 5천만원
- 행정 지원 : 자료집 제작, 제작워크숍 개최

라. 우수작품 재연 공연 지원

- 대상 : 2007년1월~2008년9월 중 공연된 창작 연극 및 뮤지컬
- 추진현황
 - 심사기간 : 2008년9월10일~10월24일
 - 심사방법 : 1차 유관기관별 우수작품추천(5작품 내외)/2차 서류심사 및 선정협의
- 선정 작품
 - 연극 : 벽속의 요정, 발자국안에서, 해무, 멜로 드라마
 - 뮤지컬 : 내 마음의 풍금, 라디오 스타, 사춘기, 한밤의 세레나데, 형제는 용감했다
- 지원내역
 - 지방문예회관 신청을 통한 우수작품 배정 (10개지역)
 - 작품당 연극 1천5백만원~5천만원, 뮤지컬3천만원~6천만원, 총 2억3천2백만원 지원
- 행정 지원
 - 자료집 제작
 - 2009년 우수공연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재공연 지원

[발제 1]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의 특징과 성과

‘창작팩토리’ 사업 발전방안

- 시범공연 작품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김 승 미

서울예술대학 교수

‘창작팩토리’ 사업 발전방안

- 시범공연 작품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김 승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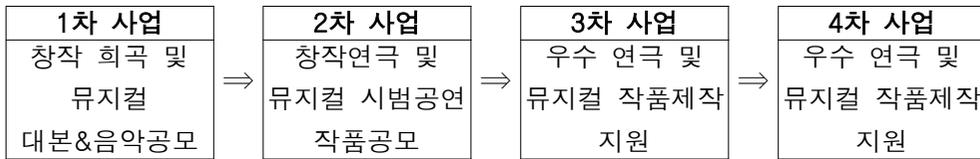
서울예술대학 교수/연극분야 코디네이터

1. 들어가며

<창작팩토리>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예술분야의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새롭게 시행한 사업이다. 1차 <창작희곡 및 뮤지컬 대본&음악 공모>사업, 2차 <창작 연극 및 뮤지컬 시범공연(쇼케이스)작품공모>사업, 3차 <우수 연극 및 뮤지컬 작품제작 지원>사업, 4차 <우수 연극 및 뮤지컬 재공연지원>사업 등의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에는 연극과 뮤지컬 분야를 시범으로 시행했으며 향후 장르를 확대할 예정이다.

2. 창작팩토리 사업의 특징

그동안 예술 창작지원은 예술가에게 1회성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창작팩토리 사업은 기존의 단발성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방식을 통해 보다 참신한 작품발굴과 선택적 집중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창작팩토리 지원 흐름도>

가령 1차 <창작희곡 및 뮤지컬 대본&음악 공모>사업은 3편의 창작희곡과 뮤지컬 대본을 선정하여 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며 2차 사업인 <창작 연극 시범공연 작품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차 <창작 연극 및 뮤지컬 시범공연 작품공모>사업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 작품을 선별하여(1차 사업에서 선정된 팀 포함) 각 팀에게 시범공연 제작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사전제작비 지원을 통해 각 팀은 구상 단계의 작품을 시범공연으로 실현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시범공연을 통해 3차 사업인 <우수연극 및 뮤지컬 작품제작 지원> 3팀이 선정되는데 연극의 경우 최우수 상1팀에게는 6천만원, 우수상 2팀에게는 4천만원이, 뮤지컬의 경우 최우수 상1팀에게는 1억원, 우수상 2팀에게는 6천만원이 지원된다.(2009년 지원금 조정예정) 선정된 팀은 문예회관이 공동제작에 참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또한 3차 사업 선정작 중 우수한 공연은 4차 사업인<우수연극 및 뮤지컬 재공연 지원>사업을 통하여 재공연의 기회가 제공된다. 작품이 생명력을 갖고 레파토리화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시행 첫해로 1차 사업인 <창작희곡 및 뮤지컬 대본 &음악 공모>사업과 4차 사업 <우수 연극 및 뮤지컬 재공연 지원>사업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9년 사업부터는 1차사업에서 선정된 희곡이 2차사업인 시범공연 사업에 자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쇼케이스를 거쳐 우수연극으로 선정된 작품은 4차 사업인 재공연지원 사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창작팩토리 사업은 1회성 지원이 아니라 작품의 탄생이라 할 수 있는 대본공모 사업부터 작품의 완성인 레파토리화까지 단계별로 작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3. 2008년도 <시범공연 작품공모>사업 진행과정

창작팩토리 4단계의 사업중 2단계 사업인 <창작연극 및 뮤지컬 시범공연 작품공모>사업신청은 2008년 9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처음이고 갑자기 공고된 사업이라 얼마나 많은 단체가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단체인 총 59개 단체(연극 38작품, 뮤지컬 18작품)가 신청했다.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7명의 심사위원들의 서면심사가 있었고 12월 15~16일에는 1차 서면심사를 바탕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모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6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뮤지컬	연극
<솔거의 꿈> 박윤영	<나마스테> 극단 혼
<영웅을 기다리며> 파파프로덕션	<바다거북의 꿈> 극단 골목길
<낭만에 대하여> 돌꽃컴퍼니	<그류? 그류!> 창작공동체 아르케
<기발한 자살여행> 쇼팩	<O.K.STORY> 극단 차이무
<오월엔 결혼할거야> 오디뮤지컬컴퍼니	<매화누이> 창작프로젝트그룹영희아놀자
<My Scary Girl> 뮤지컬 해븐	<그 샘에 고인 말> 극단 코끼리만보

쇼케이스가 열리기전 선정단체를 위해 2번의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쇼케이스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1차 워크샵에서는 실무자와 참여단체간에 소개가 있었고 워크샵 공연 순서를 추첨하였다. 2차 워크샵에서는 실무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쇼케이스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상의하였다.

2009년 1월 20일과 22일 열린 쇼케이스는 일반관객에게는 오픈되지 않고 심사위원 7명과 문예회관 관계자 10여명이 참가하였다.

쇼케이스는 예정된 대로 공연 30~40분(연극 : 30분/뮤지컬 : 40분), 질의응답 10분, 철수 및 전환에 10분이 소요되었다. 질의응답은 공연이 끝난 후 쇼케이스의 진행을 맡은 이다엔터테인먼트 손상원 대표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연출자와 작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채점은 심사위원 7인과 문예회관 관계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이루어졌다. 연극의 경우 최우수상 팀으로 극단 꼬끼리 만보의 <그 샘에 고인 말>이 선정되었고 우수상 팀으로는 극단 골목길의 <바다거북의 꿈>과 창작공동체 아르케의 <그류? 그류!>가 선정되었다. 뮤지컬의 경우 최우수상 팀으로 파파프로덕션의 <영웅을 기다리며>와 우수상팀으로 오디뮤지컬컴퍼니의 <오월엔 결혼할거야>가 선정되었다.

4. 발전방안 및 제언

창작팩토리 사업은 그동안의 예술지원사업이 1회성으로 예술가에게 직접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벗어나 희곡지원에서 레파토리 개발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창작팩토리 사업 중 2번째 단계인 시범공연(쇼케이스)사업은 단체에게는 제작 구상 단계의 작품을 시범공연으로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기금을 제공하는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서류심사에 그치지 않고 작품을 직접 접함으로써 보다 좋은 작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받는 쪽과 지원을 하는 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최근 이러한 쇼케이스 지원방식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문화재단의 NArt(젊은 예술가 지원사업)의 경우도 쇼케이스 방식을 도입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CJ에서 주최하는 영페스티벌도 쇼케이스를 통해 좋은 작품을 발굴해내고 있다.

그러나 쇼케이스 통한 지원방식은 진행과정이 번거롭고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가령 이번 2008년 쇼케이스의 경우에도 지원자격 등에 대한 명확치 않은 규정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뮤지컬 부문에 선정된 뮤지컬 해븐의 <My Scary Girl>의 경우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쇼케이스 공연이 문제가 되어 결국 지원이 취소되었다. 연극 부문의 창작집단 아르케의 <그류? 그류!>도 쇼케이스 전에 공연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전문연과 6개 단체의 공동협의를 통

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다.¹⁾

2008년 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2009년 창작팩토리 사업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첫째 쇼케이스 사업은 경연이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지원 단계부터 지원 자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지원공고를 보면 지원 자격을 ‘공연되지 않은 창작연극 및 뮤지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되지 않은 창작연극 및 뮤지컬’이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다. 가령 ‘전막 공연이 아닌 40분 공연’ ‘입장료를 받지 않은 공연’ ‘학교나 극단 내에서 이루어진 워크숍 공연’ 등은 어떻게 볼 것인가 등 ‘공연되지 않은 공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 지원 자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역시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쇼케이스 공연에 있어 기술적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 2008년에는 처음 개관한 아르코시티 극장에서 쇼케이스가 열리는 관계로 조명이라든가 음향에 있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가령 조명의 경우 기본조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몇 개의 스페셜을 줄 것인가 등을 미리 극단에게 공지해 준다면 극단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쇼케이스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2008년의 경우 처음 사업이 개시되어 급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2009년 사업에서는 좀 더 미리 많은 단체들에게 창작팩토리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공모가 끝난 다음에 지원을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단체가 많았고, 너무 급히 공고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단체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2009년 창작팩토리 사업이 보다 많은 단체에게 홍보된다면 좀 더 좋은 작품과 많은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1) <그류? 그류!>의 경우 2008년 12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상명아트홀 2관에서 총 11회 워크숍 공연이 있었다. 쇼케이스전 공연이 되었고 서울문화재단이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팀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문연에서는 일단 지원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공연이 되지 않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원자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넷째로 올해 장르별 3개의 작품을 선정하면서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구분 없이 가능성 있는 작품을 뽑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08년 창작팩토리>사업은 대본 공모사업과 쇼케이스에서 자격에 대한 시비로 2개 작품이 취소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촉박한 시간 내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가 진행한 연극부문 6개 단체의 인터뷰조사결과에서도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는 의견이었다.²⁾ 이러한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쇼케이스 준비기간 중 6개 단체의 연습장을 방문하여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발제 2] 창작팩토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8 창작팩토리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제언

조 용 신

뮤지컬 칼럼리스트

2008 창작팩토리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제언

조 용 신

뮤지컬 칼럼리스트/뮤지컬분야 코디네이터

2008 전문연에서 주관하는 창작팩토리 사업의 뮤지컬 부문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코디네이터의 주 업무의 하나인 사업 주최 부서와 시범 공연 지원작으로 선정된 6개 팀 간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 기간 중에 최소 한차례 이상 각 팀의 담당자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가졌다. 이는 시범 공연을 준비하는 각 팀 혹은 제작사의 창작자, 프로듀서, 연출가 등과의 만남을 통해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 주최 측에 바라는 바를 종합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느낀 2009 창작팩토리 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한다.

1. 초기 홍보의 부족

뮤지컬 업계에서는 그동안 2005~2007년 동안 모 집단에서 진행해오던 뮤지컬 쇼케이스 행사가 있었다. 대본과 음악(악보/데모CD)만으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이 2차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쇼케이스를 벌이고 심사위원들은 그중 몇 작품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2008 창작팩토리의 공모 방식에도 많은 참고가 된 행사였다. 하지만 이 행사가 주최측의 내부 사정으로 2007년을 끝으로 중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외부에는 업계에 이렇다 할 공식적인 설명이 없이 조용히 자취를 감추는 모양이 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다음해 이것을 준비해오던 일부 창작자들이 실망하는 일이 있었으며, 따라서 보다 예측 가능한 스케줄의 가진 안정된 뮤지컬 창작 공모전에 대한 갈증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이를 대체할 2008 창작팩토리가 사업이 확정되고 공고를 시작했으나, 공고에서부터 접수 마감, 시범공연까지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촉박했고 특히 접수 단계에서 행사의 존재를 알리는 홍보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모집공고가 올라간 날짜가 2008년 9월 12일인데 당일부터 서류를 접수하기 시작하여 11월 21일 마감하기까지 약 두 달 동안의 여유가 있었지만, 실제로 업계의 창작자들과 개인으로 활동하는 예비 지원자들조차 모집공고가 난 후에도 이 사업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린 점을 생각하면 창작자가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이 점은 첫해 행사이고, 지난 행사의 결과가 매스컴과 기타 업계의 소식망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가 직접 연극/뮤지컬 창작자들을 지원한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성 있는 이 행사의 존재 자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업무량에 따라 결정할 문제지만 만약 업무가 커진다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뮤지컬협회와의 제휴 혹은 홍보대행사를 선정해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작품 성격과 시범공연 형태간의 딜레마

면담을 통해 만나본 개별 팀들의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범 공연 기회를 갖게 된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시범 공연의 형태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졌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자신들의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축약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그것이 심사위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애초

부터 축약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특별하게 제시하지 않았기에 송스루 스타일+나레이션 형태의 방식, 주요 장면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전체적으로 템포를 빠르게 해서 축약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쇼케이스 공연이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현장에서 최종 선정작으로 발표된 작품들(영웅을 기다리며, 오월엔 결혼할거야, 마이 스케어리 걸)이 모두 코믹을 표방하며 전체적인 대본+음악의 하이라이트 축약 방식으로 선보여진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자칫 다음 사업에서 지원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추어질까 우려가 된다. 만약 앞으로도 재미있는 코미디에 흥행을 해야 하는 작품만이 계속 선정된다면 이후에 상대적으로 진지한 색깔의 작품은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코믹 작품의 경우 원래 템포가 빨라서 하이라이트로 공연을 하게 되면 재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비극적인 작품의 경우 템포가 느리다보니 축약하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음악을 주로 들려주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쇼케이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다소 지루한 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극적이고 예술적인 작품들 중에 대본 단계에서 뛰어난 가능성이 보인다면 쇼케이스 현장에서 그러한 점을 심사위원들이 미리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

한 팀은 시범공연 이전에 가진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작팩토리 같은 이러한 제도는 정말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왕이면 상업화의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예술적인 작품들에 지원을 집중해줄 수는 없나? 꼭 우리 작품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자금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자본의 역할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장에는 돈이 안 되지만 예술의 기반을 이루는 창작자들의 원초적인 고민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3. 개별 참가팀에 대한 보완책 필요

시범공연을 가진 여섯 작품 중 유일하게 개인 참가작으로 올라온 작품이 있었다. 이 작품은 국악을 활용한 음악적인 완성도나 진지한 주제, 전통 소재 활용 등 여러 요소에서 심사 단계에서부터 호평을 받아온 작품이지

만 정작 시범 공연이라는 특수한 형식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실적으로 최종 시범공연에 선정되는 작품이 개인 보다는 제작사에서 참가한 작품이 대다수였지만 앞으로 개인 참가자들의 작품도 꾸준히 출품될 것이며, 특히 이들은 이러한 공모전이야말로 자신들의 존재와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행사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진행 방침에 따라 개인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도 배우 섭외 등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게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되는데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개인 출품작의 경우 해당 창작자와 협의해서 쇼케이스를 담당해 줄 연출가나 드라마트루기를 연결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직하다.

4.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

이번 사업에서 몇몇 작품이 선정 후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후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1차적으로 주최측과 심사위원들의 종합적인 스크리닝 실수이다. 하지만 지원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로 인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참가하는 지원작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 요건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위해서는 최종 후보작에 오른 후에는 의무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서 사후 적발 시 취소될 수 있음을 사전에 강력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업의 심사위원이 단계별로 달라서 일관된 검증 절차를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지원 요건에 따른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단계에서 같은 심사위원이 위촉되는 것이 필요하며, 심사가 끝난 후 이분들의 실명공개도 고려했으면 한다.

5. 총평

창작팩토리의 취지가 창작자들의 구상단계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작품화하

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시범공연의 방식과 기준 그리고 심사방식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향후 보다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앞으로 2009 창작팩토리가 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스케줄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나아가 공연계를 살찌우는 내실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러한 제언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 1]

공연예술지원정책으로서의 창작팩토리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원종원

순천향대학교 교수

공연예술지원정책으로서의 창작팩토리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원 중 원

순천향대학교 교수/뮤지컬 평론가

문화산업의 시대다. 어느 사회나 국가, 문화권을 막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그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 작업은 힘들고 어렵다. 쉽게 이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만큼 국가적 관심과 배려, 지원과 육성의 체계적인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

좋은 콘텐츠의 제작은 단순히 그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 그것들이 만들어지며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 얼마나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인 구조와 틀을 준비하고 확립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만들어진 물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화적 생산물이 잉태되고 성장하며 성숙되기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과 환경의 구비, 이른바 단계별 제작 혹은 단계별 시장의 구축이 더 중요하다. ‘열매’를 기대하기에 앞서 ‘과정(process)’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창작팩토리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변환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보다 완성도 높고 원활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해 기대와 우려, 몇몇 제안을 논해본다.

1. 창작팩토리 사업의 성과와 우려

이미 발제글에서도 거론됐고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창작팩토리 사업

의 가장 큰 성과는 보다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창작 콘텐츠의 발굴 작업 및 절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심사위원의 주관적이거나 미학적인 시각과 판단에 근거해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성장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점검함은 물론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높은 질적 완성도를 추구하게 된다는 장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제작 인력이나 창작집단의 수적인 미약함, 기성 교육제도와 연계성 부족, 인력 배출의 편협성(배우나 연기자 중심인) 등으로 인해 체질적으로 허약한 우리 공연계의 현실에서 크리에이티브 인력을 육성하고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면에서 이번 창작팩토리의 성과와 의의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물론 참여하는 인력풀의 수적 제약과 한계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문제로 지목될 수 있으나,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차츰 개선되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도 좋을 듯 싶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 몇몇 우려와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우선 작품의 공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창작팩토리의 지원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공연되지 않은’ 창작연극 및 뮤지컬이어야 하는데, 일부의 경우 작품의 제작이 이미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있거나 간이 무대 형식, 워크샵, 쇼케이스 등으로 무대에 올려진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독회(reading)나 시연회, 워크샵과 쇼케이스 등은 작품의 개발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창작팩토리 사업은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성숙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적극 감안한다면 경쟁작이나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준비의 단계나 검증 과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자연히 불공정성이나 자격에 대한 시비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사업에서 지원 자격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정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일반인들의 사업 참여 유도에 관한 효과적인 홍보의 부족, 다소 급하게 진행된 일정, developing 과정에서의 형평성, 쇼케이스에 대한 대

중들의 관심 유도 미흡 등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반면, 사업을 각 단계별로 구분해 1차년도인 2008년의 경우, 1차와 4차 산업을 집행하고, 향후 2, 3차 사업을 추진한다는 집행 계획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지닌 의의와 미래지향적 가치, 짧은 기간임에도 비교적 원활히 추진된 일정 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장기적 추진과 실행이라 할 수 있다. 안전성과 지속성이 보장된다면 첫 해의 성과로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며, 정책의 효과는 해가 갈수록 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창작팩토리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

보다 발전적인 정책의 운영과 안정적인 제도의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자격의 정밀화와 심사기준의 일관성, 전문성 확보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행 첫 해라는 어려움을 심분 감안하더라도 선발된 작품이 공정성 시비에 싸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정책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심사자나 담당자, 참여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론의 여지없이 1차 사업의 참여자는 작품의 초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3차나 4차 사업의 참여자라 해도 단순히 재공연과 레퍼토리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리메이크나 리바이벌에 대한 지원과 육성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창작팩토리 사업을 단지 콘텐츠 개발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적인 정책 집행의 차원이 아니라 연례적인 행사화 또는 공연 축제와의 연계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초기 개발과정에 대한 일반

대중 혹은 얼리 어댑터나 마니아 집단의 관심은 향후 작품의 대중성이나 인지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점점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된다. 물론 자칫 쇼케이스가 과열된 경쟁이나 지나친 대중적 소구 등으로 인해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의 운영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공연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나 지원사항 등을 차등 적용하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의 운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창작 뮤지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작품이 만들어지거나 시도되어지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인 시장의 문제점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원금이나 정책적 지원을 늘려 일정 이상의 규모를 지닌 작품도 꾸준히 시도되고 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되고 배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폭넓은 참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정책 운영방식의 개선 및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창작팩토리는 기성의 공연 관계자 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통해 더욱 왕성히 실험되고 시도되며 살 찌워질 수 있는 개방형의 경연대회를 표방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일반 참가자 뿐 아니라 인접 문화산업 장르에서도 왕성히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작품 개발의 인큐베이팅 장르 설계 등이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토론 2]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의 특징과 성과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을 통한 공연제작 사례

: 창작공동체 아르케의 '그류? 그류!'에 있어서

김 승 철

창작공동체 아르케 대표

2008 창작팩토리 사업을 통한 공연제작 사례

: 창작공동체 아르케의 '그류? 그류!'에 있어서

김 승 철

창작공동체 아르케 대표

1. 글머리에

우선 공연 현장에서 작업하는 한 사람으로서 '창작팩토리 사업'을 주관하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결코 아니라, 공연 현장의 현실적 절실함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뜻이라는 걸 밝힙니다. 현 시점의 공연예술계의 제작여건이나 수익구조를 감안할 때 '창작팩토리 사업'과 같은 장기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책의 필요가치는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창작팩토리 사업'이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첫 해에 참가한 당사자로서 느낀 몇 가지 점들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2. 2008창작팩토리 사업에 참가하면서

① 사업에 지원하기까지

창작공동체 아르케가 '창작팩토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계기는 타 극단 대표의 소개를 통해서입니다. 극단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히 듣게 된 사업 공지 사실이 아니었으면 '2008창작팩토리 사업'에는 참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업 첫 해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공연 지원 사업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사업이 정작 공연현장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공지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08창작팩토리 사업'에 지원한 극단들의 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르케로서는 낮은 경쟁률로 참가하게 되어 다소 유리해진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창작팩토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극단들이 참가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점은, 첫 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많은 공연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저 또한 주변 연극인들로부터 사업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은 터라, 2009년 사업은 보다 활성화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② 지원 자격에 관하여

이번 '2008창작팩토리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지원자격의 문제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창작공동체 아르케의 경우도 지원서 접수 전에 전문연 측에 참가작 '그류? 그류!'의 워크샵 발표 예정 사실을 밝히고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은 뒤에 접수하는 과정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공연 진행단계에서 작은 잡음이 일어난 점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르케로서는 잘못 없이 동료인 타 극단들에게 멋쩍은 느낌을 갖게 됐고, 또 최종적으로 지원작으로 선정되지 못한 극단들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은 뒤끝을 남겨, 혹이라도 선정과정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준 게 아닌 가 염려가 됩니다.

사후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자격을 해석의 왜곡이 없게 보다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③ 시범공연을 통한 선정 과정에서 인식된 문제점

'2008창작팩토리 사업'의 시범공연 진행은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가 극단들에 대한 전문연 측의 세심한 배려와 시범공연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신 김승미 선생님의 유연한 진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공연을 통한 선정 과정이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다소의 아쉬움이 남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범공연은 지정된 극장에서, 하루에, 참가한 여섯 팀이, 순차적으로, 동일한 시간 안에, 각자 원하는 장면을 시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극장 여건이나 각 팀들에게 주어진 시연 준비시간을 감안할 때 조명이나 장치, 기타 기술적인 문제들은 별달리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참가한 모든 팀들에게 일률적인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한 시범공연 심사의 형식은 너무 단순한 틀로 참가작들을 평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아르케의 ‘그류? 그류!’는 한 가족이 지닌 사연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마을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의 궤적을 따라가는 게 작품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작품의 일부분만을 보아서는 ‘그류? 그류!’에 대한 적절한 관극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극의 진행에 따라 점차 광분해가는 마을 사람들의 당위성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함께 시범공연에 참가한 타 극단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연극 공연은 스포츠 시합처럼 공인된 규칙대로 모든 작품이 공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작품의 내용이나 그에 적합한 형식에 따라서 공연의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시범공연을 통한 선정과정도 다 단계로, 유연한 형식의 적용으로, 작품의 다양성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가 극단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작품을 자랑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준 상태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시범공연 심사의 지향할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한 제가 잘 해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아쉽게 느낀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선에서 그칠까 합니다.

작품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심사의 형식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창작팩토리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의 권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연관계자나 전문가 분들의 심층적인 연구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시범공연의 형식과 절차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④ 지원작 선정 이후의 진행과정에서

지원작 선정 이후 전문연 측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류나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극단의 인력이나 시간 소모를 최소화해 주었고, 신속한 제작비 지원을 통해 공연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었으며, 단순한 제작비 지원 뿐 아니라 작품의 홍보나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도 방법을 모색해준 점들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선정된 극단들과의 간담회 자리나 이번 토론회 개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작팩토리 사업'의 발전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방법의 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글을 맺으며

현재 창작공동체 아르케는 '창작팩토리 사업'의 지원에 힘입어 5월 '그류? 그류!' 공연을 앞두고 순조롭게 공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작팩토리 사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여건에서 공연을 준비하게 됐을 것이고, 그럴 경우 20여명이 넘는 배우 및 스태프들에 대한 치우는 물론 작품 자체의 완성도나 홍보, 기획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을 것입니다.

'창작팩토리 사업'과 같이 중·장기적인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작팩토리 사업'이 선도적 위치에서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연극하는 사람들, 뮤지컬 하는 사람들, 공연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잔치'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토론 3]

창작팩토리 사업과 문예회관의 역할 확대 방안

소 홍 삼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창작팩토리 사업과

문예회관의 역할 확대 방안

소 홍 삼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창작팩토리사업은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기존 예술창작지원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방식, 간접지원을 통한 작품 발굴과 선택적 집중 지원, 중기지원방식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이 갖는 또다른 의미는 문예회관을 유통과 제작에서 적극적인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지원방식의 틀 개선과 함께 창작팩토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예회관을 중요한 파트너로 부각시킨 것이다.

예술창작지원제도측면에서 그동안 객체로 취급되던 문예회관을 주체의 하나로 변화시킨 구상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이전보다 한걸음 나아간 방식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된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러한 구상과 실제의 간극은 매우 크다. 아니 창작팩토리를 '공공극장의 생산성 강화나 문예회관 활성화로 연결 짓는 것은 다소 비약적인 목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가져본다.

창작팩토리 사업 4단계에서 (①대본공모 ②시범공연지원 ③우수작품제작지원 ④ 재공연지원) 문예회관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은 ③우수작품제작지원과 ④재공연지원사업이다.

먼저 우수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참여문제를 짚어보자. 이 과정에서는 연극과 뮤지컬 분야에 최소 1작품당 4천만원에서 1억원까

지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 규모보다 더 주목할 사항은 문예회관을 적극적으로 메인 또는 코프로듀서로 참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었다.

창작팩토리 사업 안내문을 보면 “시범공연(쇼케이스)을 통해 우수연극 및 뮤지컬 작품제작 지원 선정작 작품을 선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예회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제작에 참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작자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고 문예회관에서는 창작의 역할을 겸해 좋은 작품을 레파토리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제작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문예회관을 공동제작 파트너로 참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예술 단체와 문예회관이 공동제작을 통해 든든한 파트너를 얻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다양한 가능성이(연습공간 제공, 예산 투자, 행정지원, 공동의 홍보마케팅 등)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선언적 구호로 끝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연극이나 뮤지컬 등 극예술작품을 제작하려는 의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방 문예회관이 전국에 채 10여개도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다소 무리한 구상이었던 걸까?

그것보다는 우선 제작자로 나서줘야 할 지역 문예회관의 역동성과 동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당초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어떠한 지원책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주관하는 측에서 이러한 목표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문예회관을 연계 시켜주려는 노력을 했는지? 선정된 단체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문예회관 파트너를 찾도록 권했는지? 문예회관에 공동제작 참여의사를 타진해 보았는지? 아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시간의 촉박함, 초기 셋팅의 어려움, 인력의 한계, 예산문제 등 주관하는 측의 여러 사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다)

향후 목표한 작업방식과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먼저 우수작품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초연이나 트라이아웃 공연을 지방문예회관에서 먼저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문예회관에게는 창작초연공연을 올림으로써 극장의 브랜드 제고나 레파토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연단체에게는 지방에서의 공연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공동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지방문예회관이 공동제작으로 나설 경우 제작비의 일부를 문예회관에 지원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의지를 갖고 있는 극장에게 동기와 명분을 제공해주는 의미이다. 물론 문예회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 제도가 단순히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문예회관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극장의 제작 레파토리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예술단체와 문예회관이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지역문예회관의 생산성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범공연을 통해 우수작품제작지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과는 별도로 제작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지역의 문예회관 관계자들이 직접 쇼케이스를 관람하게 하여 작품에 관심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재공연지원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단체와 문예회관 양자 모두의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재공연 사업에서는 연극4, 뮤지컬 5 총 9개의 작품이 10개 지역의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10개의 문예회관이 1작품당 1-2일의 공연을 통해 좋은 작품을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초청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혜택이었으나, 좀 더 목적의식을 갖고 이 사업을 접근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예술단체들은 재공연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문예회관을 단순한 소비처로 인

식하고 있는 듯하고, 문예회관 역시 우수한 공연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회적으로 공급받는다는데서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공연지원사업은 우수한 작품을 가진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문예회관도 단순히 좋은 공연 작품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여 1-2일의 단발성 공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예회관의 레파토리나 관객개발, 지역시장 확대, 극장의 특성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공연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얼마전부터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도 일부 대학로 소극장 작품들을 공동으로 기획해 1달여씩의 장기공연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공연지원사업이 예술작품의 생명력을 길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면 지원금으로 단발성 공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시드머니로 한다면 문예회관과 공동으로 충분히 중장기 공연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한 새롭고 장기적인 유통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창작팩토리 재공연지원사업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심사방식과 심사위원 구성에 관해 짚어보고자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사방법의 허점과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앞의 발제문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한다.

우수작품재공연 심사위원 6명중 1명만이 지방문예회관 관계자이다. 재연의 수요자이나 구매자이자 중요한 파트너인 문예회관 관계자의 참여 비율이 너무 낮다. 말로는 문예회관을 중요한 정책 추진 파트너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필요할 때만 이용의 대상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심사과정에 문예회관 관계자의 비율을 지금보다는 높여야 할 것이다.

또 시범공연 심사를 통한 우수작품 제작지원 사업 심사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유사한 사례, 아니 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심사당시 전문심사위원 7명과 문예회관 관계자 10명이 심사그룹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심사 배정이 전문심사위원의 경우 0~10점, 문예회관 관계자의 경우 0~3점으로 점수를 기표하여 전문심사위원 70점 + 문예회관 관계자 30점으로 총 100점을 기준으로 다득점 순으로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상식이하의 너무 어이없는 발상으로 더 이상 거론조차 피하고 싶을 정도이다.

심사와 관련하여 차후 사업에서 이러한 심사방식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창작팩토리사업에서 문예회관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주체자로서 삼고 있는 만큼 그에 걸 맞는 역할과 자격을 배려해야 한다.

또 창작팩토리 사업의 궁극적 목적지인 레파토리화를 실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단체와 문예회관간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긴밀한 협업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문예회관과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토론 4]

창작 팩토리 사업 구조와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유 희 성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창작 팩토리 사업 구조와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유 희 성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1.사업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예술 분야의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 창작 팩토리 사업을 시행했다. 전국 문화회관 연합회 주관으로 시행되었던 지난 사업은 극본 공모, 쇼케이스, 작품 제작 지원, 재공연 지원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작자를 발굴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경쟁력있는 작품을 발전시켜 집중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창작 팩토리 사업은 단계별 지원 방식을 취하고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 지원을 통한 작품 발굴과 선택적 집중 지원이 기대되었다.

창작 희곡 및 뮤지컬 극본과 음악 공모를 통해 연극과 뮤지컬 분야에 작가 작곡가등 창작자의 새로운 작품을 발굴한다는 취지가 있었다.

또한 창작 연극 및 뮤지컬 시범 공연 작품 공모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6작품을 선별하여 시범 공연 제작비 지원을 통해 제작 구상 단계의 작품을 시범공연으로 실현할 기회를 제공했다.

시범 공연을 통해 우수 연극 및 뮤지컬 작품제작 지원 선정작 작품을 선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예회관이 적극적으로 공동 제작에 참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다. 이를통해 제작자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고 문예회관에서는 좋은 작품을 레파토리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되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창작 작품중 우수한 공연은 우수 연극 및 뮤지컬 재공연 지원 선정작을 통해 재공연의 기회를 제공하여 작품이 생명력을 갖고 레퍼토리화 되도록 지원한다.

2. 운영과정

이번 창작팩토리는 공연 예술 인큐베이팅 제도로 극본 공모와 쇼케이스를 통한 심사를 거쳐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과, 문화 예술 유관기관의 추천 및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2009년 2월까지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재공연의 기회가 주어졌다.

① 극본 공모

- 상금 및 차년도 시범공연 기회 제공
- 역량있는 작가 발굴 및 창작 의욕 고취

② 시범공연 지원

- 창작 및 투자 유치기반 조성. 시장 저변 확대
- 시범공연 제작비 지원 및 시연회 개최
(시범 공연작중 제작 지원 작품 선정)

③ 우수작품 제작 지원

- 작품성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지원
- 공동 제작을 위한 워크샵 개최 및 제작 지원금 지급

④ 재연 공연 지원

- 공연 재연을 통한 레퍼토리화 지원
- 재공연 기회 제공(공연료 지원 및 공연 지역 배정)

3. 제언

뮤지컬 부문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소감은 개인적으로 3년 전부터 문화관광부 뮤지컬 부문 회의 때 여러번에 걸쳐 창작에 대한 지원제와 지원금이 선택과 집중으로 대폭 강화되고 증액되어야 한다고 했었다. 그로부터 3년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그야말로 혁신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다른 지원제도와 차별화되고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거라는 아주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다만 2008년 쇼케이스의 경우 지원 자격등에 대한 참가 단체나 개인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의 불이해로 인해 약간의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 창작 초연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또한 단 하루라도 기 발표된 경우로 인해 수상의 순간을 코앞에 두고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다. 즉, 공연되지 않은 공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시행 요강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쇼케이스 진행에 있어서도 무대와 조명, 소품의 사용에 대한것들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운영으로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시시비비 가랄 것 없이 심사 기준에 의한 판단과 결과에 아쉽고 섭섭함은 있겠지만 인정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집행부에서 더 철저히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

참 다행이도 2008년 창작 팩토리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에도 많은 참가자와 제작자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참가자들이 이번 창작 팩토리만을 위해서 준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때 제출했거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미 작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팀에서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쇼케이스 시범 공연에서는 “영웅을 기다리며” 처럼 바로 공연을 앞둔 작품이나 공연 날짜가 이미 나와 공연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많아 준비에 대한 차이로 인해 그 부분에서도 약간의 모호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창작자나 제작자들에게 다시 한번 창작 팩토리의 올바른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정확한 인식을 갖고 동참할 수 있게 유도 해야 할 것이다.

즉,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수도 있겠고 뮤지컬 협회와 연관해 모든 제작자들에게 적극적인 루트로 홍보 하는것도 좋을 듯 하다.

2008 창작 팩토리로 인해, 좋은 작품이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창작 팩토리의 취지와 더불어 수상한 작품들도 어떤 색깔이 분명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비영리극단의 지원제도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그 작품의 색깔이 뚜렷하다.

즉, 완전 참신한 소재의 순수 창작이거나, 실험성이 강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이 돋보이는 작품이거나, 진한 감동과 함께 느낄 수 있는 휴먼 스토리 등이 뮤지컬의 옷을 입고 거듭 날 수 있는 작품이랄지 등의 창작 팩토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의 색깔이 있었으면 한다.

심사 기준 또한 명확하게 할 것이며 참여하는 심사위원 또한 뮤지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에 의한 합당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공모제와 함께 많은 지원제도가 생기고 있는데 한곳에 지원한 작품들이 서너군데 지원제 때 똑같은 작품들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공모나 지원제도도 뭔가 특징과 지향하는 로선이 분명한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다.

물론 목적성을 갖고 작품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자유로운 소재의 선택과 함께 동시대인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술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감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한다.

창작 팩토리는 애초부터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함께하면서 지방에서도 관객들이 선호하거나 대중적으로도 즐겁고 유쾌한 작품들을 선호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 일 수 있겠다. 하지만 창작 팩토리를 통해 선택되거나 집중 지원 받는 작품이라면, 대중적인 재미와 함께 가슴이 따듯해질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작품도 개발되어지길 기대해 본다.